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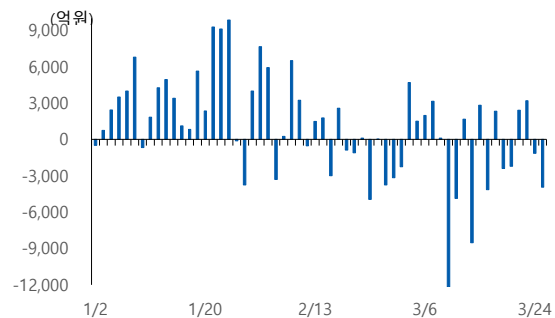


해외기관투자자는 신흥국투자 관망 중

1. 외국인,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 순매수

- 작년 4분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순매수
- 3월 들어 미국 연준이 금리 에 대해 매파적 분위기를 보이면서,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섬. SVB 은행 파산, CS은행 사태로 은행 시스템 위험으로 외국인 순매도 이어짐
- 은행 위기가 진화되면서 외국인 순매도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

연초 이후 외국인은 순매수를 이어왔으나, 금리인상과 은행 위기 등으로 3월 순매도로 돌아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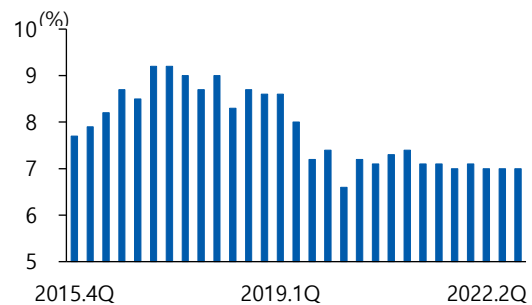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최근 해외 주요 연기금은 신흥국 비중 유지하거나 축소

- 3월에는 금리인상 우려에 이어 미국과 유럽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력이 큰 영국 자금과 미국 자금 모두 국내주식 순매도.
- 외국인 수급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는 해외 연기금 등의 투자 중요.
- 2020년 이후로 해외 주요 연기금은 신흥국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음. 신흥국 회복이 가시화되면, 비중 확대에 크게 부담이 없는 상태.

네덜란드의 ABP는 신흥국주식 투자 비중 7%로 유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외국인,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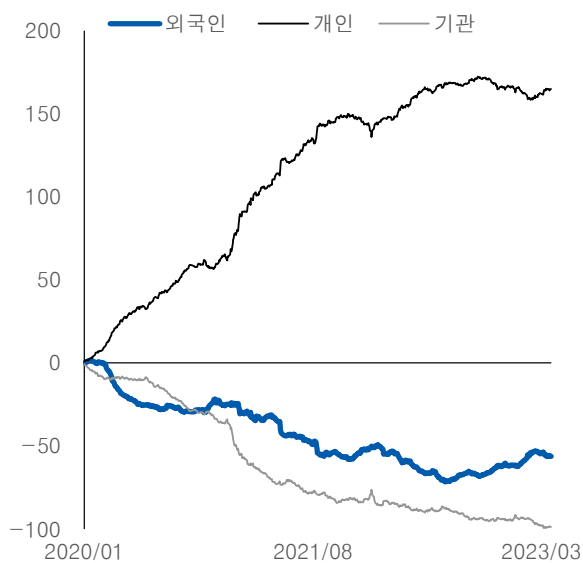
2020년 이후 국내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매수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분위기가 2022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져왔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선 반면, 개인의 순매수는 다소 주춤해졌다.

작년 4분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에 대한 기대가 신흥국 증시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순매수하였다. 기관 투자자들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순매도를 이어갔다.

작년 12월과 1월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각각 4030억원, 6조 1460억원을 순매수하였고, 2월에도 1조 1690억원을 순매수하였다. 하지만 3월 들어 미국 연준이 금리에 대해 매파적 분위기를 보이면서,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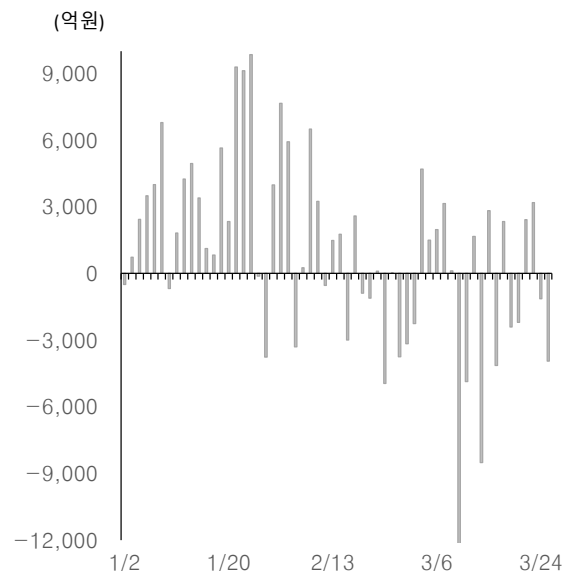
SVB 은행 파산, CS은행 사태로 은행 시스템 위험이 불거지면서 외국인 순매도는 이어졌으나, 위기가 진정되면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은행 위기가 진화되면서,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했던 외국인 자금도 순매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트1] 2020년 이후 주체별 국내주식 누적 순매수. 외국인은 작년 3분기부터 순매수 분위기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연초 이후 외국인은 순매수를 이어왔으나, 금리인상과 은행 위기 등으로 순매도로 돌아섰음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SVB파산, CS 사태로 외국인은 3월 순매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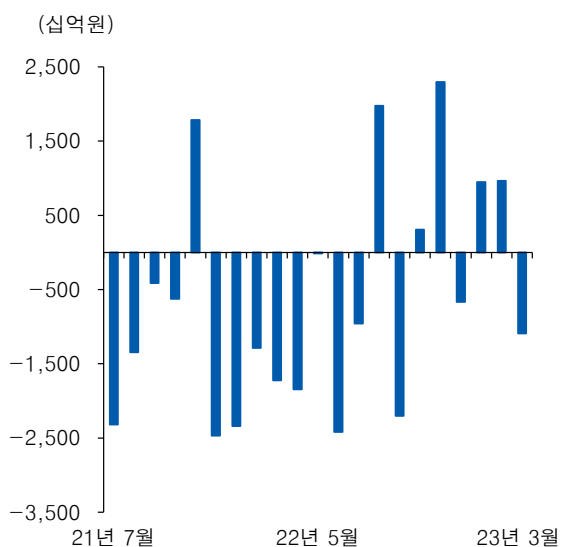
국내주식시장에서 미국계 자금은 펀드와 관련이 크고, 영국이나 룩셈부르크는 헤지펀드·패밀리오피스·역외펀드 등과 관련이 큰 것으로 파악을 한다. 영국이나 룩셈부르크는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향이 있어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2021~2022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이 이어지면서 영국과 룩셈부르크 자금은 외국계 자금의 순매도를 주도해왔다. 반면, 미국 자금은 2021년 4분기부터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외국인 순매도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었다.

3월에는 금리인상 우려에 이어 미국과 유럽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력이 큰 영국 자금과 미국 자금 모두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다. 21일까지의 순매도임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미국 자금의 순매도 규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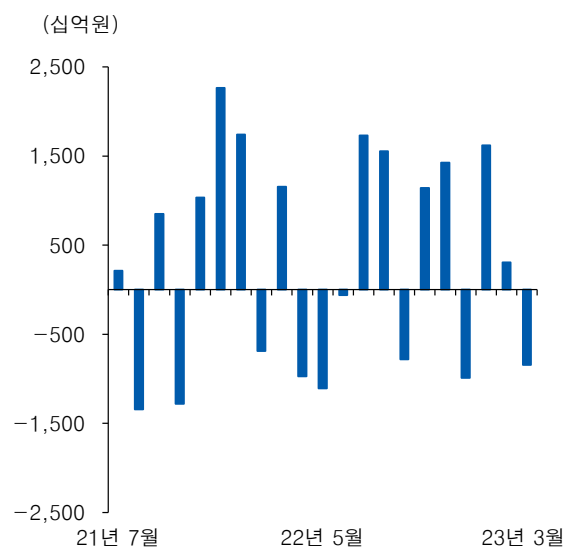
도이체뱅크의 위기 진화와 SVB 인수 등으로 글로벌 은행권의 불안은 완화되는 분위기이다.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펀드시장에서 신흥국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재개되고 있다.

[차트3] 영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 순매수



자료: 금융감독원, 거래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3월은 22일까지

[차트4] 미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 순매수



자료: 금융감독원, 거래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3월은 22일까지

3. 해외 주요 연기금은 신흥국 비중 유지하거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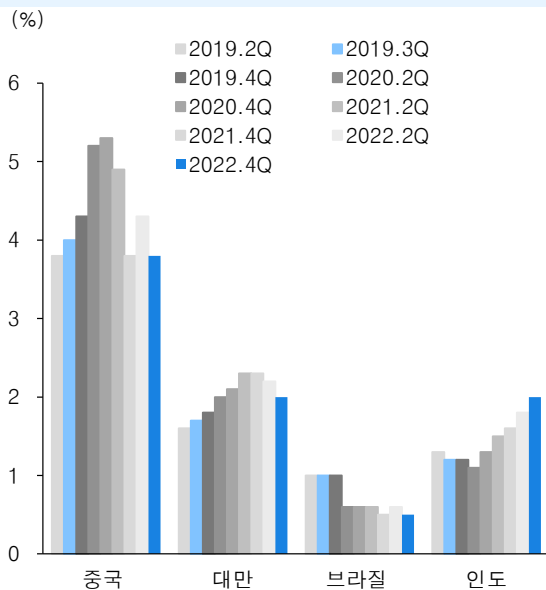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기금 등의 투자가 중요하다. 2018~2020년에는 세계 주요 연기금이 신흥국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신흥국 주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 적이 있다.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5년 이전까지는 주식포트폴리오를 선진국 90%와 신흥국 10%로 구성하였다. 2017년 신흥국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12%까지 늘어났었다. 2022년말 신흥국 비중은 10.9%이다.

네덜란드의 ABP도 2016~2019년에 신흥국주식 투자비중을 크게 늘려서, 2017년에는 9%를 넘어선 적도 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신흥국주식 비중을 7.0%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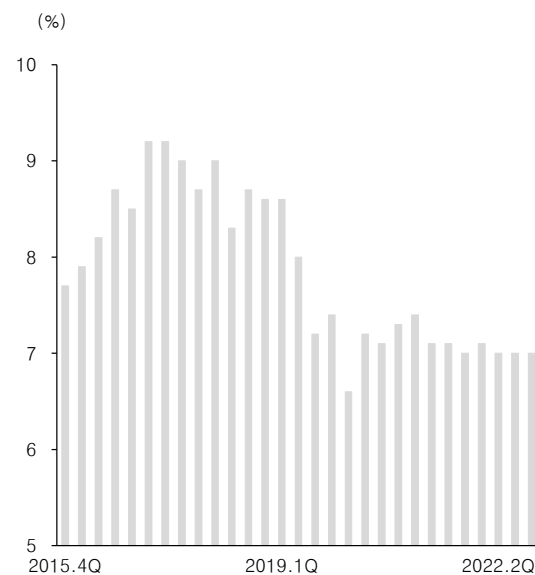
미중 갈등과 성장을 하향 등으로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였고, 이에 따라 신흥국 주식 비중도 줄어들었다. 대부분 기관투자자의 신흥국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신흥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신흥국 투자 비중을 늘리는 데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차트3] 노르웨이국부펀드는 중국 비중을 계속 줄이고, 인도를 늘림



자료: NBI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네덜란드의 ABP는 신흥국주식 투자 비중 7%로 유지



자료: ABP,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